



9월 4일 베트남 쯡방현 웬자이 고등학교서 열린 불교계 NGO 단체인 월드머시코리아의 희망장학금 수여식이 끝난 뒤 수여받은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며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웬 반보 위원장이 현진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통간현 보산사에 열린 월드머시코리아 장학금 수여식.

# 전쟁의 상흔 위에 흠뻑려진 '희망'의 빛줄기

## 월드머시코리아, 9월 3~5일까지 베트남 희망장학금 전달식 열어

**현진 스님(월드머시코리아 대표)**  
"장학금은 돈이 아닌 희망을 전해 주는 것"

**지일 스님(복지법인 내원 상임이사)**  
"용기 잃지 말고 꾸준히 학업에 전념 해주길"

**석해심 스님(보산사 주지)**  
"어려운 이웃 돕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

**레몽자 회장(쯡방현 지방정부 대표)**  
"새학기 시작 때마다 학생들에 용기줘 감사"

**썬 부동장(빈구현 동사무소 부동장)**  
"꿈 펼치려는 이들에게 장학금은 큰 도움"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머시코리아의 자비행이 베트남 오지마을에 펼쳐져 현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월드머시코리아는 대표이사 현진 스님을 비롯해 지일 스님(사회복지법인 내원 상임이사), 루이엔 월드머시 베트남 희망장학회 회장 등 관계자 4명이 9월 3일부터 5일까지 베트남 남중부지역인 쯡방현, 쯡방현, 통간현, 빈푸성, 빈구현 등 5개지역 초·중·고·대학생 총 616명(초등=264명, 중등=231명, 고등=72명, 대학생=49명)에게 2700여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 중 라오스 국경지역에 위치한 빈푸성 지역은 안타깝게도 정치적 여건상 해당관청서 월드머시코리아의 방문에 난색을 표해 관계자를 통해 수혜자 110명 학생의 각 집마다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졌다.

현진 스님은 "한국과 베트남은 전쟁으로 인해 비슷한 뼈아픈 역사를 지닌 나라이다. 양국이 이번 장학전달사업 등으로 우호관계가 증진되길 바란다"며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베트남 미래의 희망을 일깨워 동량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 각 개인 입장으로 보서는 공부하는데 충분치 않을 수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용기를 잃지 말고 꾸준히 학업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9월 4일 첫 방문지인 쯡방현 동사무소 행사에서 펼쳐진 희망장학회 전달식에서 레몽자 지방정부대표는 "우리 쯡방현지역은 베트남전쟁중 가장 치열했던 곳인데 속해 있어 피해가 가장 심했다"며

**쯡방현 등 낙후된 남중부 5개지역 방문 초중고대학생 616명에 2700만원 수여 내년 1월 우뚝 사이에 중등학교 완공 예정**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지역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인데 이렇게 해마다 잊지 않고 새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방문해 학생들에게 학비를 보조해 주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쯡방현 웬자이 고등학교 앞마당 특설무대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은 재학생 10명이 무대에 올라 현대식 허슬 춤을 공연하는 환영 행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웬 반보 쯡방현 인민위원회 부 위원장은 "학생들이 희망장학금을 받고 성장해 사회의 인재로 진출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희망과 꿈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며 "지역정부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필요한 인재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노력하겠

다"고 관심을 표명했다. 월드머시코리아의 장학금 전달식이 끝난 뒤에는 웬자이 고등학교장이 월드머시코리아 대표 현진 스님에게 감사패와 학생들의 감사편지 20여통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편지를 살펴보니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꼭 성공해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다" 등 감사와 희망의 언어로 가득차 있어 월드머시코리아 관계자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웬자이 고등학교 출신이자 베트남 희망장학회 회장인 루이엔씨는 "저도 학생시절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지만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공부해 베트남 최고 대학인 호치민대와 한국의 명문인 서울대, 연세대 등 석박사를 받았다"며 "여러분들도 공부하는데 현실적인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꼭 극복해 나중에 어려운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는 자비와 보살행을 펼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마지막 행사는 통간현 보산사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장학금 전달식이 시작되기 전 사찰 어린이 무용단이 '존경하는 스승님께'라는 주제로 연꽃춤, 소수민족 어린이 무용단 6명이 '스님의 마음'을 주제로 환영 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지친 여정의 노고를 풀어주었다. 이 자리에서 석해심 보산사 주지 스님은 "종교를 초월해 공부를 잘하면 후원해 주는 것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우리 베트남은 총 인구 9500만명중 약 50프로 이상이 불교신자이다. 우리 불자들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며 "베트남은 통일된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은 전쟁의 피해로 어려움이 계속된다. 우리 통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우리 지역을 찾는 월드머시측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5일에는 빈구현 동사무소에서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썬 부동장은 "우리 빈구현은 산악지대에 위치해 매일 2~3시간을 걸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을 정도로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하는 학생이 많아 희망 장학금이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환한 미소를 지우며 설명했다. 실제로 행사장서 만난 학생들중에는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다. 고교시절 집이 멀어서 학교 근처서 하숙을 하다 부탄가스 폭발해 심한 화상을 입고도 호치민소재 웬 텃 단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한 웬 푸다 군(21)은 "2년째 장학금을 받고 있다. 몸이 비록 정상이지 않지만 힘들 때마다 저를 응원하고 후원을 해주는 월드머시 현진 스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대학졸업 후 취직을 해서 돈을 벌게되면 어려울때 은혜 받은 만큼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할 것"이라고 연설 허리굽혀 인사하며 고마워했다. 소수민족 출신의 고등학생인 웬티 훈판(17)도 "집이 학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매일 통학하기 힘들지만, 이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새 학기에 널 학비 때문에 걱정했는데 이렇게 1년치 학비를 주셔서 올해에도 학비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어 기쁘다"고 즐거워 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초등학생에 50만동(2만 5천원), 중학생에 60만동(3만원), 고등학생에 80만동(4만원), 대학생에 200만동(10만원)의 장학금이 각각 지급됐다. 한편 2011년 창립대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불교계 NGO단체인 월드머시코리아(www.worldmercykorea.com)는 국내 청소년 장학사업을 비롯해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지서 교육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및 해외 이웃돕기, 국내외 긴급구호, 환경개선, 국제구호단체 네트워크 결성 및 홍보, 교육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000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특히 청소년 교육 지원과 저소득층 생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월드머시코리아는 내년 1월 라오스 북부지역 최대 산악도시인 우뚝 사이에 10개의 교실로 구성된 돌짜이 중등학교 건립 완공을 앞두고 있다. **베트남=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원효대사가 밝힌 정토왕생의 길

**유심안락도**  
遊心安樂道  
-마음이 극락에서 노니는 길-

한국불교의 위대한 성자 원효대사가 서방정토와 극락왕생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유려한 문체로 명쾌하게 서술한 정토신앙의 지침서!

원효 저/해봉 역주/국판 양장/200쪽/값 12,000원

### 각종 점안의식의 작법절차를 집대성!

**점안의식집**  
점안의식집  
전래되는 의식집들을 비교분석하고 보완하여 여법한 점안의식을 완성!

삼화상청, 신중작법, 불상점안, 삼보통청, 신중권공, 화엄시식, 조탑점안, 나한점안, 신중점안, 시왕점안, 천왕점안, 산신점안, 가사점안, 조건점안, 불상이운, 괘불이운, 파불급경가사소송법 등 수록

해사 편집/사륙배판/스프링 제본  
312쪽/값 30,000원

### 드디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반야심경 출간!

**어린이 반야심경**  
어른도 함께 보는 알기 쉬운 반야심경 풀이

오랫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장선생님이 어린이들을 위해 펴낸 책!  
어린이의 수준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해설, 편안하고 예쁜 삽화들이 어린이들을 행복하고 지혜로운 반야심경의 세계로 이끌어준다.

민병적 글·용정은 그림/전면컬러/208쪽/값 11,000원